

2022년 안전감찰 활동 기본계획

조 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cksaint@cni.re.kr

CONTENTS

1. 서론
2. 안전감찰 제도 개요
3. 충청남도 안전감찰 수요분석
4. 안전감찰 목표 및 기본 방향
5.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6. 결론

요약

- 안전감찰 활동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최근 언론보도 및 안전신문고 신고 현황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도가 2022년 안전감찰활동을 위해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위험목록보고서, 언론보도의 주요 이슈, 행정안전부 감찰유형, 충청남도 기 추진 감찰활동 및 안전부패 행정수요 내용을 종합하여 2022년 안전감찰 활동 추진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감찰 주제를 선정함
- 안전감찰활동의 기본방향은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행복한 충남을 견인하는데 있으며, 부패 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감시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는 데 둠
- 추진전략으로는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감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 안전약자를 보호하는 감찰로 설정하고 각 추진 전략 별 감찰 주제는 (1) 일상의 안전을 위한 감찰에서 공영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감찰,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감찰, 상수도 안전관리 실태 감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불법이용 실태 감찰 을 수행함 (2)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로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감찰과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 실태 감찰을 수행함 (3) 안전약자를 보호하는 감찰에서는 소규모 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찰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관리 감찰을 수행함
-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부패를 뿌리 뽑고 불법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관행으로 이어진 습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안전감찰 활동의 추진의 연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0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복잡 다기해지는 각종 재난과 더불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체감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 이에 생활 속의 위험요소와 재난관리체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관리 함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지침을 통해 지자체 조직개편과 더불어 안전분야 감찰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초기 안전감찰 제도의 방향은 관행적인 부패요인과 안전무시 관행과 토착형 안전비리의 근절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예방조치,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¹⁾
- 재난 사고의 연도별 발생과 인명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등의 현상은 대응·복구 위주의 재난관리 정책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피해저감을 위한 예방·대비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필요함
- 따라서 생활속 위험요소와 재난관리체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시정하여 재난발생을 방지하고, 재난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감찰 제도의 활용이 요구됨

1) 재난안전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제77조(재난관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행정안전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근거

- 안전감찰 제도의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년도 감찰활동 실시의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안전관리 체계, 안전 점검 실태의 진단을 통하여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2022년 충남도가 시행하고자 하는 안전감찰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전략에 따른 실행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점과제 선정 및 부패유발 구조를 파악하여 도 차원의 감시역량 결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 안전 감찰 업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매년 모든 영역의 재난 및 사고 종을 다루기 어려우므로 민선7기 충남도의 정책방향과 안전감찰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한계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2022년 수행하여야 할 과제 및 목표를 도출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춤
- 조사 분야는 기관별 감사사례(안전비위 등), 실제 사고사례, 언론 등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야 외에 주민 신고사례를 통해 도출된 분야를 망라함

● 연구의 기대효과

- 안전감찰 업무의 기본 테마를 설정함으로써, 건축, 산업, 식품안전 등 안전 분야 전(全)영역에서 고질적 안전부패 사례를 발굴·개선하는데 기여함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안전 분야 생활적폐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완화의 미명하에 각종 안전규제를 탈법·편법으로 회피, 완화, 폐지하는 사례에 대한 적발을 내용으로 하여 도민 생활의 실질적 안전 확보에 기여함

● 연구의 정책활용

- 이 연구 자료는 역점 시책화 및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제안, 워크숍 등 대외발표와 안전감찰 시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됨

- 안전분야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안전감찰 시행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관련제도 정비에 활용됨

02

안전감찰 제도 개요

- 안전감찰은 안전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수시·정기적으로 감시 확인하여 부당사항을 처분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반복적 안전 관련 위법사항 및 사고발생 원인의 자율적 시정을 위한 체계 마련, 안전관리 순환체계(계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환류(feedback), 감찰 사례 확산 및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등의 목적을 가지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 차원의 예방적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이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적부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활동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와 광역 지자체는 안전 감찰관을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안전감찰의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으로, 중앙 단위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할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시행함
- 충남도의 안전감찰의 대상 및 범위는 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로 한정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효율적 감찰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일반사항

● 수립배경

-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 분야의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근절이 필요함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넓은 범위의 안전 분야에서 안전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으며, 안전 분야의 생활적폐가 만연한 상황임
- 안전 분야의 불법행위는 사고를 유발하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됨
- 10년간 안전에 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현재 안전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취약분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안전부패를 방지하고 안전관리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안전신뢰를 높이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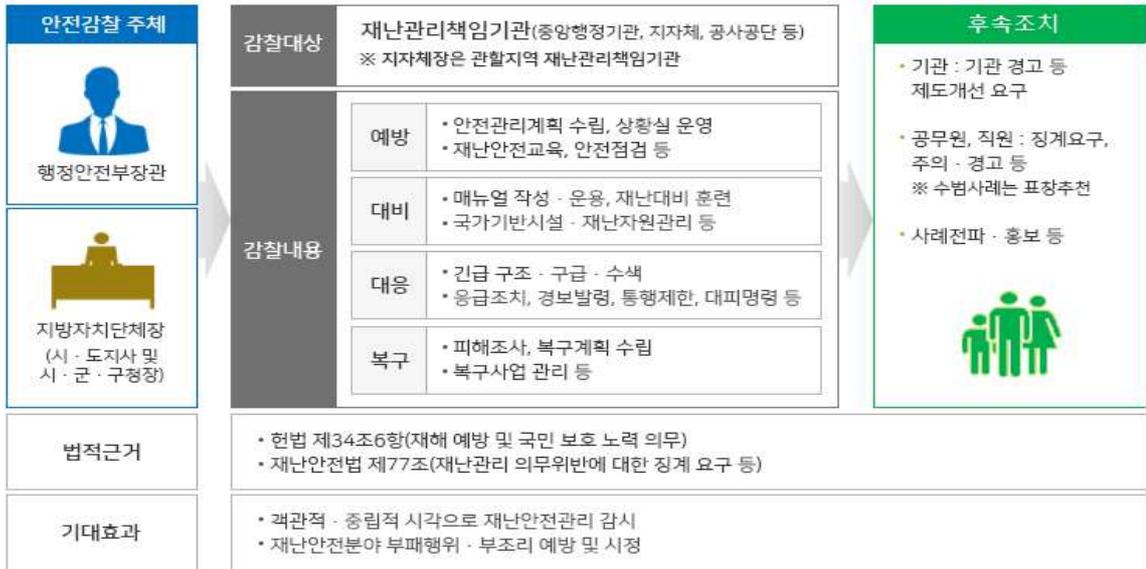
● 법적근거

- 헌법 제34조6항(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노력 의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경고·징계 등을 요구하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제77조(재난관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행정안전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에 의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예방조치,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전(全) 단계에 걸친 안전감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성격

- 안전관리체계, 안전점검 실태 등을 심층 진단으로 안전부패 대책 수립

- 안전규제를 탈법·편법으로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사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의 합리적 대책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의 경고 및 징계 등 처분 조치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그림 1] 안전감찰 개념도²⁾

2. 안전감찰

- 안전감찰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조사 및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재난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시 확인하여 부적절한 사항을 처분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
 -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안전감찰관을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반이 되는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름
- 감찰의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중앙 단위 및 관할 지자체

2) 자료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sub/a06/b08/siTask/screen.do>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함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 공단 등이 포함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으로 정의됨
 -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평상시에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상황실 운영, 안전점검 등의 예방활동과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재난안전 훈련, 국가 기반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재난관리자원 비축 등의 대비활동을 수행함
 - 재난시에는 긴급구조·구급, 응급조치, 경보발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응원 등의 대응활동과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관리와 같은 복구활동을 수행함
 - 안전감찰 활동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토록 하는 대안제시형 안전감찰 실시함
- 안전감찰의 3요소는 법·제도, 시설·장비, 관리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됨. 예를 들어 법·제도의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적정 여부’, 시설·장비의 경우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시공 실태 적정 여부’, 관리자의 경우 ‘상주 감리원 이탈, 자격 대여 등 실태 점검’ 등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음
 - 안전감찰 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 및 공무원·직원에게 기관 경고 및 징계요구 등을 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 여건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안전감찰은 4가지 대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첫째, 부정·오류의 예방 및 시정 기능(위법행위 적발 및 처벌), 둘째, 지도적 기능(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 업무추진방식개선 위한 대안 제시), 셋째, 안전감찰 결과 홍보·전파 등을 통한 개선향상, 넷째, 관리 통제 등 평가 환류 도모 등임

3. 안전부패

- 기본적으로 안전감찰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부패 사례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취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대형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대형 재난안전 사고 대부분이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토착형 비리, 안전무시 관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안전부패로 정의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음

● 2018년 10월 출범한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부패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사익추구형 : 도덕적 해이에 기반하여 사적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유형
- 안전무시 관행형 : 일처리 편의를 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유형
- 지역토착형 : 자기감독의 한계로 안전부패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유형
- 구조적부패 유발형 :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패

03 충청남도 안전감찰 수요분석

1. 재난 유형별 취약 등급 분석을 통한 안전감찰 요구 영역 탐색

- 충청남도의 재난행정 수요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가능함
 - 대형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반복성이 높은 재난 유형들이 사전적 안전감찰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재난행정 수요에 대한 파악을 통해 안전감찰의 잠재적 대상을 예상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9)에서 발표한 각 시군구 재난 유형별 취약 등급을 통하여 행정수요를 파악함
 -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유형에 따라 특히 취약한 지역이나 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난 유형과 연관되는 시설을 선정하고, 지역 및 시설 수(면적 또는 연장 등)을 반영하여 1~5등급을 부여³⁾함
- 재난 유형에 따른 취약 지역 및 시설 비중을 고려하여 취약 점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군구별로 1~5등급을 산정
 - 대규모 집중호우의 경우 저지대, 하천지역, 농업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총 11개 유형의 자연재난, 21개 유형의 사외재난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며, 재난 유형별 취약 등급은 1~5 등급으로 구분되며 5등급에 가까울수록 해당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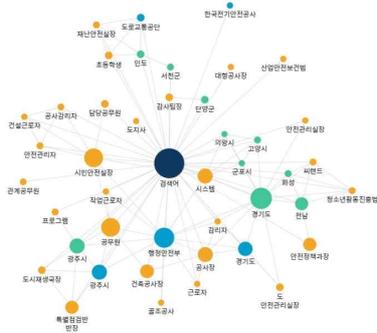
3) 5등급에 가까울수록 시설수가 많음

- 충청남도의 위험등급은 풍수해, 유해화학물질사고, 전기가스사고, 사업장 산재 분야에서 4등급으로 취약성을 확인함
- 상대적으로 항공기 사고, 지진, 한파, 산지재해, 대설, 산불, 위험은 1~2등급으로 취약등급이 낮아 행정수요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도내 15개 시군 평균 등급을 보면 가뭄(3.67), 황사(3.53), 풍수해(3.27), 사회재난의 경우 유해화학물질(3.67), 에너지수급불안정(3.60), 수질오염(3.47), 전기가스 사고(3.47), 교통사고(3.40)이 평균값이 높아 상대적인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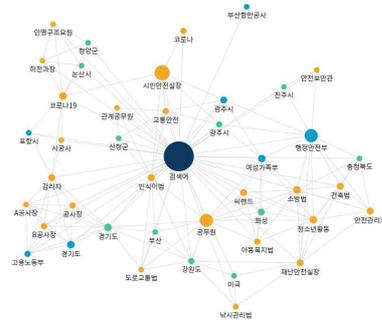
<표 1> 충청남도 시군별 위험목록

	자연재난											안전사고																								
	풍수해	폭염	지진	가뭄	황사	한파	산지재해	대설	조류	백두산화산분화	미세먼지	화재	정보통신	사불	건축물붕괴	사회기반시설붕괴	간접파	에너지	수질오염	테러	유해화학물질사고	폭발	철도사고	쓰레기수거매립	해양오염	교통사고	기축전염병	해양유도선사고	방사능재난	국지적도발	항공기사고	안전취약계층사고	전기가스사고	범죄	사업장산재	
전체	3.27	2.27	2.93	3.67	3.53	2.27	2.00	2.60	3.20	2.33	3.67	3.33	2.73	3.00	2.80	2.73	3.20	3.60	3.47	3.00	3.67	3.27	3.07	3.27	3.33	3.40	3.33	3.27	3.13	2.73	3.40	3.13	3.47	2.67	3.40	
천안	4	4	4	5	4	4	2	4	4	4	5	2	4	3	4	4	2	5	5	4	5	4	3	5	4	5	5	4	4	4	5	5	4	4	4	
공주	2	3	3	3	3	3	3	3	3	4	3	4	3	4	3	3	5	3	2	3	3	3	2	2	4	2	2	3	2	3	4	3	2	3	3	
보령	4	2	2	4	3	2	2	2	5	2	3	3	2	4	2	2	5	4	3	2	2	2	3	4	5	5	4	5	4	3	2	2	2	2	3	
아산	4	2	4	5	4	2	2	3	3	3	4	4	3	3	4	3	5	5	3	5	5	4	4	4	4	4	4	3	2	4	3	4	4	4	5	
서산	4	1	3	4	3	1	2	2	4	3	3	3	3	3	2	3	4	4	4	3	4	4	2	3	4	4	3	3	3	4	1	3	3	3	4	
논산	2	3	2	4	3	3	2	2	3	2	3	4	2	3	2	1	5	3	3	3	3	2	2	3	3	5	5	3	3	2	3	4	3	3	2	
계룡	1	1	1	1	1	1	2	1	3	1	1	4	1	3	1	1	1	1	2	1	3	1	2	1	1	2	1	1	1	1	1	1	1	1	1	2
당진	4	2	3	4	4	2	1	1	3	3	4	4	3	2	3	3	4	3	4	3	4	4	2	3	4	4	3	4	3	3	4	3	4	2	4	4
금산	2	3	2	3	3	3	3	3	2	2	4	3	2	4	3	2	2	3	3	3	4	3	3	4	3	2	2	2	2	3	4	5	4	2	3	3
부여	4	3	4	3	3	3	2	4	1	2	4	4	2	2	3	3	4	4	3	3	3	3	3	3	2	3	2	3	3	4	4	4	4	3	3	3
서천	4	2	3	4	5	2	1	4	4	1	5	4	3	1	2	3	2	4	4	4	4	4	4	4	4	3	3	4	4	3	3	3	4	3	4	4
청양	2	2	2	3	3	2	2	1	3	2	2	3	2	3	1	2	3	3	2	2	3	2	3	3	3	3	3	3	2	2	3	3	2	1	1	1
홍성	4	2	4	4	5	2	2	2	3	1	5	3	3	2	4	4	3	4	4	3	5	4	4	3	4	1	4	4	4	3	4	2	4	3	4	4
예산	3	2	4	4	5	2	2	4	3	2	4	3	4	3	4	3	5	4	4	4	4	4	5	3	2	4	4	2	4	4	5	5	5	3	4	4
태안	5	2	3	4	4	2	2	3	4	3	5	2	4	5	4	4	2	3	4	4	3	4	3	4	4	3	4	4	4	3	3	2	4	4	5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9) 재구성.



[그림 4] 2020년 지역 일간지 관련기사의 기관 정보 키워드 관계도



[그림 5] 2021년 지역 일간지 관련기사의 기관 정보 키워드 관계도

- 지역일간지 중심키워드에서는 2020년 건축공사, 해체공사 등 건설 관련 근로자 안전 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2020년에는 교통안전관련 민식이법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 등장하였으며, 인명구조, 코로나 관련 사항도 검토되었음
- 아동복지법 키워드와 함께 소방법, 건축법 등 관계법규 위반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일간지를 중심으로 활동내용이 더 활발하게 보도되고 있으며, 감찰의 분야가 건축, 공사 및 노동관계, 도로 교통, 낚시 등 레저 활동에도 미치고 있음
 - 충남 서해안 지역의 낚시인구 유입증가에 따른 안전문제가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낚시 어선 관련 사항의 감찰이 요구됨
- 언론보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증감한 주요 재난 이슈로는 산지재해, 자살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붕괴나 방사능 재난의 경우 최근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꾸준히 증가하는 재난 이슈로는 한파, 화재, 감염병 등 보건의료 이슈가 있으며, 정보통신, 생활제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폭염이나 감염병, 유해화학물질 사고도 증가하는 이슈로 파악할 수 있음

3. 행정안전부 감찰 유형

-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행정안전부(과거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안전감찰 사례를 연도별로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2015년은 주로 각종 연습과 훈련, 국가안전대진단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내용이 많음
 - 부작위에 대한 사항을 주 점검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항으로는 구제역, 메르스 대응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함
- 생활 밀착형 부패유형으로 감찰 대상이 된 것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짐
- 2016년은 가장 많은 15건의 감찰이 이루어졌으며, 감찰 활동의 적용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됨
 - 감찰 대상이 되는 부패 유형도 다양하여 사익추구, 구조적 부패 유발, 안전무시, 부작위는 물론 지역토착 부패 까지 포함됨
- 각종 훈련, 구제역·AI 대응실태, 건설공사현장,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물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해수욕장, 무더위쉼터 운영 및 관리 실태, 어린이 위험노출에 대한 사항을 포괄함
- 지역적으로는 대전 도안대교 설치 이슈와 충남지역 구제역 발생 관련 감찰이 실시됨
- 2017년은 총 7건이 실시되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재난안전 관리실태 점검과 사익추구로 인한 부패요인에 중점을 둠
 - 대형자동차 운행 관련 감찰, 한강유람선 스크류 손상 은폐 이슈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짐
- 2018년에는 구조적 부패유발 유형과 사익추구 유형에 중점을 두고 총 7건의 감찰이 이루어짐
- 구조적 부패 유발 유형으로는 2017년에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운영 실태, 과적차량 운행 실태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짐
- 사익추구 유형으로는 가스안전관리실태, 요양병원 등 안전관리 실태, 재난 복구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짐
- 2018년 10월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9년부터 집중적으로 안전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감찰을 시행하였음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여 안전취약요소를 중점 감찰하여 총 6,511건의 부패 사례를 확인
-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과 안전규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총 123건의 안전분야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53개 제도개선을 완료

- 2021년에는 해체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함
- 안전분야 부패근절 업무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 까지 전체 시도에 출범 완료 예정
 - 충청남도에서는 도, 시·군 안전감찰 담당자와 충남개발공사, 전문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기관 안전감시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반부패 활동 수행

4. 충청남도 감찰활동 이력 분석

- 2018년부터 2021년 까지 충청남도가 시행한 안전감찰 활동은 총 16 건

<이하여백>

<표 2> 2018-2021 충청남도 안전감찰 활동 추진 결과

(단위 : 건)

구 분	총계	신 분 상		행 정 상			제도개선 건의
		문책	주의 등	시정	통보	주의 등	
총 계 : 16건	685		41	187	164	252	41
'18년 소계	17		-	3	7	1	6
야영장(캠핑장) 안전관리	17		-	3	7	1	6
'19년 소계	424		35	142	74	145	28
학교시설관리실태	43		2	30	6	-	5
건설업 등록 및 하도급실태	75		-	11	23	29	12
건축자재 및 다중복합건물	72		16	31	23	-	2
대설대책추진실태	82		-	-	8	74	-
공공건축물안전관리실태	98		16	47	2	32(환수1)	1
펜션가스관리실태	29		-	14	5	5	5
수상레저사업 운영실태	25		1	9	7	5(수사1)	3
'20년 소계	167		1	41	64	57	4
시설물안전법이행실태	63		-	7	17	37	2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실태	21		-	10	9	2	-
청소년수련시설관리실태	16		-	7	5	3	1
농업용저수지안전관리실태	37		1	1	19	15	1
코로나19대응실태(4회)	30		-	16	14	-	-
'21년 소계	77		5	1	19	49	3
육교승강기관리실태	23		5	-	16	-	2
코로나19대응실태	54		-	1	3	49	1
어린이놀이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실태				처리 중			

- 시행 첫 해인 2018년을 제외하고 3년간 평균 5건의 감찰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찰 대상 유형도 레저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청소년 수련시설 과 건설 하도급, 코로나 19 대응 실태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특히 펜션, 수상레저사업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코로나 19 관련 등 현안 이슈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감찰 활동이라 평가할 수 있음
-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여 여름철 내수면 수상안전 , 겨울철 대설 대책 등 전략적 추진 외에도 연례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요인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음
 - 특히 2019년 시행된 감찰 결과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일회적인 단속이 아님을 주지시켜 효과성을 제고
-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강조되는 안전복지와 인구방어선으로서의 안전을

추구함에 있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감찰을 수행한 바 있음

5. 충청남도 안전부패 행정수요 분석 결과

- 재난유형 검토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부패 소재 현황을 통해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에 취약한 재난 유형 및 안전 분야를 정리함
 - 취약한 재난 유형에는 대규모 정전사태, 건축물 화재, 싱크홀(포트홀) 발생, 수질오염, 화학물질 폭발, 산업단지 화재, 환경 유해물질, 신종재출연감염병, 악취 관리, 시설물 관리, 건설공사, 등이 포함됨
 - 충청남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부패 분야는 시설, 교통, 보건, 생활, 환경 등임
- 이러한 취약한 재난 유형을 볼 때, 충청남도의 안전감찰 행정수요는 자연재난에 비해 사회재난의 비중이 더 높음. 이러한 사회재난들의 경우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유형들이 많으며, 시설, 산업, 도로 등 도심의 노후한 인프라와 연관된 사례들이 많음
- 취약한 재난 유형들 중 안전부패 사례로 연관될 수 있는 유형들은 안전감찰이 주로 이루어진 시설 및 생활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폭발, 수질오염, 악취 관리, 환경 유해물질 등에서 다수의 안전부패 사례들이 발견됨
 - 따라서 향후 안전감찰을 시행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안전부패 사례들을 새롭게 진단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언론보도 및 그동안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안전감찰 사례, 충남도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가장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노후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재난 지휘관 등 안전정책 전반의 관리와 어린이,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관련 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안전감찰 사례선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안전감찰 사례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경우 중앙부처로서 타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시행했기 때문에 안전감찰 사례 영역이 다소 협소함

-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 이미 안전감찰을 실시했던 사례들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향후 안전감찰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함

<표 3> 충청남도 취약 재난 유형과 연관된 안전부패 사례

취약재난유형	안전부패 사례	안전부패 유형
환경유해물질	하수처리장 부식성 유해가스 발생 및 경영실적조작	지역토착형
	유해성 기준 초과 시설 공개 미흡	
	산업단지 유해물질 확산 대책 미흡	
수질오염	수질기준 미달 상·하수처리장 방치	
시설물관리	공연장, 운동경기장, 공공가로시설물, 공공시설, 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	4대 유형 모두적용
건설공사	기초공사 부실시공 감시 부실	지역토착형
	무단설계변경 및 조성 공사 부실	안전무시관행형
	해체건물 붕괴 사고	
화학물질 폭발	무허가 공장 화학물질 관리·대응 소홀	안전무시관행형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종합적 대응 부족	

- 현재까지 안전감찰에서 4대 안전부패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부작위 사례들이 많았던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부작위 유형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 안전감찰의 대상이 된 각종 부작위 사례들이 각종 안전 관련 조례,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단순히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지 못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향후 법·제도적 미비 보완이나 인력 및 전문성 충원 등을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리자의 역할이 미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부패 사례들이 현저히 많은데, 이는 앞서 언급한 부작위 사례와 관련된 사안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들이 다양한 안전관리 업무에 미숙하거나, 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이행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향후 장기적으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통해 담당 관리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현재 안전관리 분야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부작위 사례들을 감찰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04

안전감찰 목표 및 기본 방향

1. 기본방향

● 안전의식 개선

- 우리 생활에 만연한 안전에 대한 경시는 경제발전과 성장 담론의 그늘에 가려진 인명경시와도 맞닿아 있음
- 사람중심의 도정지향과 국민의 행복 추구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복지 실현은 안전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 일방의 노력으로 개선되기 어려움
- 기업, 도민 각 분야 전 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안전감찰 활동의 방향이 됨

● 안전문화 확산

- 안전감찰의 기본 목적은 안전무시 관행을 탈피하여 생활속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있음
- 문화는 개인과 집단, 조직 내에서 모든 행동과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되고 습관화되어 모든 구성원에게 통용되는 관습적 가치로 확정된 것으로,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한 학습이 체화되어 불편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건인

2. 목표

-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고, 부패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감시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감수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3. 추진전략

(1)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감찰

-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도민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식과 불안요인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소통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신뢰도 향상과 직결되는 것으로,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음
 -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는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 강화 차원에도 기여함
- 안전관리는 필연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다소간의 불편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줄 때 도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실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감찰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리과정이 형성되어야 함
- 법 개정에 따른 변화내용이 주민들에게 홍보되지 않아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신기술의 발달과 개인화 추구 경향으로 인하여 기존에 상용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기기나 수단이 등장하는 사례가 생겨나면 이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개선 요구가 필요해져 규제로 연결됨
 - 개정되는 법령의 하위 법령 정비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개정 또는 제정된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위법사항을 답습하게 됨
- 법·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제도적 요인에 의해 안전부패 사례로 발전하는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미 제정 사례들에 대한 통합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기능을 성숙시킬 근본대책으로 발전해야 함

(2)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

- 기후변화에 따라 계절성 재난의 발생우려와 그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풍수해, 폭염, 한파 등 재난관리를 위한 체계가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이 요구됨

- 계절에 따른 관광객 유입요인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 가을철 낚시어선 관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필요함

(3) 안전약자를 보호하는 감찰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분야 보호구역 관리가 필요함
- 주야간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지역에 따라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는 건물에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설주의 인식에 따라 시설 설치 및 성능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 자력 거동이 불편한 시설 이용주민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 등 사고발생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됨

1. 일상의 안전을 위한 감찰

과제 ① 공영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 도,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 소홀로 배수로 철망 도난이나 화물차 및 버스, 장기 주차 또는 방치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은 물론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
- 전기 배선에 쌓인 각종 먼지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주차장 관리사무실 주변과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법 설비를 설치·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적시에 점검하지 않거나 고장을 방치하여 안전을 위협받거나, 도난 등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우려가 큼
- 공영주차장 표지판 등 주차장 설비,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불법 적치물 및 폐기물과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이 추락하거나 기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표 4> 충청남도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

기수	면수	기수비율	면수비율	설치개소	
				설치개소	개소비율
569	8,627	1.5%	1.1%	451	1.7%

<표 5> 충청남도 기계식 주차장 신규설치(사용검사 현황)

기수	면수	기수비율	면수비율	설치개소	
				설치개소	개소비율
3	156	0.2%	0.3%	3	0.2%

<표 6> 충청남도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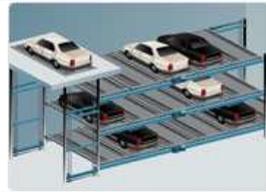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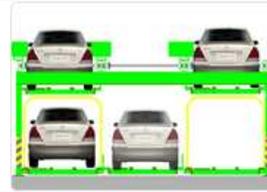
	기수	면수	기수비율	면수비율	설치개소	
					설치개소	개소비율
정기검사	99	1,576	1.3%	0.9%	95	1.5%
정밀안전검사	92	1,193	1.7%	1.2%	87	1.9%

- 교통안전공단의 전국점검 결과는 50% 가량이 운영중단에 이를 정도의 수준으로 도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사망사고 30건 발생하였으며, 출입문과 안전센서 상태가 기준에 못미치거나 바닥에서 차량을 지탱하는 운반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음
- 지자체의 단속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이행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운영을 지속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기계식 주차장은 수직순환식⁴⁾, 수평순환식⁵⁾, 다층순환식⁶⁾, 2단식⁷⁾, 다단식⁸⁾, 승강기식⁹⁾,

- 4)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 5)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6)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상하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7) 주차구획이 2단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승강기 슬라이드 식¹⁰⁾, 평면왕복식¹¹⁾, 특수형식¹²⁾ 등으로 구분됨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2단식
			
다단식	승강기식	승강기 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 현재 도내 운영중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파악되는 시군 기계식 주차장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계룡시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킴스플라자	2단식	7	2003-03-05	2021-01-08	적
2	대웅빌딩	승강기식	18	2002-11-01	2020-03-07	적
3	영산빌딩	다층순환식	11	1997-11-29	2019-11-01	적
4	충청남도 계룡시 번영 1길 5-14 (1,2호기)	다단식	8/4	2001-08-09	2016-09-24	-미검사
5	계룡프라자	승강기식	51	2003-04-21	2020-04-21	적
6	주은빌딩 (1,2호기)	2단식	4/9	2001-10-23	2019-04-29	-미검사
7	현대빌딩	2단식	4	2003-11-25	2020-11-23	적
8	산내들빌딩	2단식	4	1997-07-26	2021-03-23	부
9	무지개빌딩	다층순환식	11	1997-08-08	2019-10-14	적
10	계룡CJ빌딩	승강기식	19	-	2021-01-26	적

8)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9)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승강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10) 승강기식 주차장의 승강기가 상하 및 수평으로 자동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11)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12) 위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11	천호빌딩	2단식	14	2002-12-03	2020-02-17	적
12	R&J빌딩(1,2호기)	다단식	16/10	2007-01-30	2020-02-14	부
13	부흥빌딩	다단식	9	2008-12-12	2015-09-02	적
14	충청남도 향교재단	다층순환식	14	2001-06-29	2020-11-04	적
15	나눔의교회	2단식	4	2007-10-02	2020-08-25	적
16	천마빌딩(1, 2호기)	2단식	8/12	2005-12-26	2020-03-17	적
17	씨티타워	2단식	8	2008-05-02	2017-07-10	-미검사
18	노블카운티	2단식	3	2012-09-06	2020-03-09	적



— 공주시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공주스퀘어빌딩	승강기식	22	1997-12-19	2021-03-19	적
2	공주제일메디컬센터	승강기식	24	2009-06-12	2020-07-23	적
3	대동빌딩	다층순환식	12	2003-03-07	2017-09-06	-미검사
4	대흥빌딩	다단식	9	-	2021-02-17	-미검사
5	미도프라자	수직순환식	12	1997-04-11	2020-05-25	적
6	학교법인금성학원	2단식	5	1999-07-15	2020-07-02	적
7	신관클리닉	다층순환식	11	2008-01-08	2021-05-17	적



– 금산군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엔이시티1차(1, 2호기)	2단식	16 / 6	2006-06-30	2020-03-03	적
2	디엔에스프라자 (1, 2호기)	승강기식	40 / 40	2001-12-28	2020-02-20	적
3	e편안요양병원	2단식	3	2009-08-25	2021-03-08	적



- 논산시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한누리클리닉	수직순환식	30	-	2019-01-16	부
2	라임빌딩	승강기식	28	1997-11-21	2021-03-04	적
3	휴드림	평면왕복식	28	2013-09-11	2020-10-16	적
4	충청남도 논산시 중 양로 128	승강기식	22	2018-04-06	2021-05-07	적
5	대안의플러스2차 오 피스텔	승강기식	21	2019-05-31	2019-05-31	적
6	충청남도 논산시 연 무로 167	다단식	3	1997-06-03	2020-12-01	적
7	충청남도 논산시 중 양로410번길 13-5	승강기식	16	2019-11-13	2019-11-13	적



- 당진시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송연빌딩	다단식	25	2004-08-23	2021-09-23	적
2	스타프라자	다층순환식	20	1998-12-16	2021-05-04	적
3	터미널프라자	다층순환식	23	2004-09-08	2019-11-21	적
4	부웅빌딩	승강기식	42	2002-01-30	2019-09-03	부
5	씨티타워	다층순환식	20	2006-07-24	2021-09-01	부
6	센타빌딩 (1, 2, 3, 4호 기)	다층순환식/2 단식 /다층순	9/5/7/8	-	2018-01-11	-미검사

		환식/ 다층순환식				
7	오션오피스텔(1,2,3호기)	다단식	8/8/8	2007-09-20	2021-05-04	적
8	원당주공프라자	다층순환식	17	2004-05-12	2020-06-20	적
9	대명빌딩	수직순환식	6	2002-12-11	2021-03-12	적
10	이재진빌딩	다단식	3	-	2020-09-08	적
11	신우빌딩	수직순환식	7	2000-01-20	2020-01-03	적
12	마니또	다단식	7	-	2020-10-05	적
13	푸른병원	다단식	13	-	2021-03-22	적
14	금화빌딩	2단식	11	1998-02-09	2021-07-19	적



- 보령시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대영빌딩	수직순환식	28	-	2021-09-30	적
2	보령CGV (1,2호기)	승강기식	28/28	2008-03-24	2020-05-08	적
3	대천한국프라자	다층순환식	7	2002-11-21	2021-05-06	적
4	덕영빌딩	수직순환식	8	2004-06-25	2021-02-24	적
5	아이리소오피스텔	수직순환식	12	2012-05-25	2021-05-24	적
6	트윈소오피스텔	수직순환식	8	2014-11-18	2019-11-18	적
7	충청남도 보령시 천 변남길 40-7	수직순환식	10	2015-06-01	2020-10-16	적



-부여군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우영프라자	승강기식	34	2000-04-20	2019-10-25	미검사
2	덕연빌딩	2단식	7	-	2019-12-07	적
3	충청남도 부여군 성왕 로 246	2단식	2	2014-07-04	2017-07-04	미검사



- 서산시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프로포즈호텔	승강기식	26	2005-04-25	2020-06-08	적
2	그린필백화점 (1,2,3호기)	2단식/평면 왕복식/다층 순환식	20/63/29	1998-08-25/1998-08-25 - 0 8 - 2 6 / 1998-08-25	2011-12-20/ 2019-05-10/2011-05-30	부/ 미검사/ 미검사
3	하트리움	승강기식	58	2015-03-23	2020-03-25	적
4	서산푸르밸리 (1,2호기)	승강기식	60/60	2017-08-11	2020-08-12	적
5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271 (1,2호기)	승강기식	70/70	2017-11-17	2020-11-25	적
6	(주)신성(서산빌딩)	다층순환식	10	1996-11-28	2021-09-14	적
7	궁전빌딩	2단식	4	-	2014-11-03	적
8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 1로 46	2단식	4	-	2010-05-03	적
9	서산메디칼센터	다단식	8	2008-05-20	2021-08-31	적
10	서인클리닉빌딩	수직순환식	15	2011-04-01	2020-04-03	적
11	스마트702	다층순환식	17	2013-12-04	2016-12-01	부
12	삼길포 벨류	승강기식	18	2016-04-26	2021-05-24	적
13	충청남도 서산시 효행 1로 52	다층순환식	12	2017-08-28	2020-11-04	적



- 서천군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서천빌딩	다층순환식	8	-	2019-01-15	적



- 아산시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아산축협	다층순환식	29	-	2020-07-28	적
2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	승강기식	30	-	2020-06-11	적
3	아산1호빌딩	수직순환식	20	-	2008-05-14	적
4	옛지오피스텔	승강기식	46	2010-03-03	2019-08-09	미검사
5	아산충무병원	평면왕복식	80	2010-09-15	2021-05-03	적
6	펜타폴리스오피스텔 (1,2호기)	평면왕복식	78/77	2010-10-08	2019-12-04	적
7	오션오피스텔	다층순환식	26	2012-11-16	2019-11-08	적
8	다운팰리스	평면왕복식	62	2013-02-19	2020-02-07	적
9	늘푸른요양병원	승강기식	28	2014-01-23	2021-01-12	적
10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555	승강기식	66	2014-02-26	2021-02-25	적
11	X-큐브	다층순환식	20	2012-05-30	2021-03-05	적
12	충청남도 아산시 배	승강기식	70	2018-02-02	2021-01-12	적

	방음 장재리 1731					
13	갤러리휴리움아파트	승강기식	68	2018-03-15	2021-03-05	적
14	신영빌딩	승강기식	19	2005-07-18	2021-06-10	적
15	에덴빌	2단식	4	2006-08-22	2019-08-01	미검사
16	에스제이빌딩	다단식	6	2006-12-14	2020-08-24	적
17	서울장여관	2단식	5	-	2020-04-16	적
18	충청남도 아산시 배 방읍 북수로 24	다단식	8	2006-11-23	2020-08-31	적
19	신라호텔	승강기식	18	1998-08-19	2012-06-25	미검사
20	청호빌딩	2단식	2	-	2010-11-24	미검사
21	세진빌딩	다단식	6	2007-03-23	2020-09-02	적
22	충청남도 아산시 배 방로173번길 10-15	다단식	4	2006-09-11	2020-12-24	적
23	충청남도 아산시 모 산로 143 (1,2호기)	승강기식/다 층순환식	60/35	2007-07-16	2007-07-16	미검사
24	신덕빌딩	다단식	8	-	2019-12-14	적
25	동양식당	다단식	7	2006-05-12	2017-10-16	미검사
26	명진파크	다층순환식	12	-	2014-11-27	미검사
27	풍기원상가	다층순환식	16	2008-08-27	2019-10-15	적
28	영산빌딩	2단식	2	-	2021-04-05	적
29	나로빌	2단식	4	2009-06-05	2020-07-24	적
30	비전프라자	2단식	6	2008-05-29	2019-06-14	적
31	창원빌 B동	다단식	4	2008-04-18	2020-12-19	적
32	드림네스트	다단식	6	2009-11-18	2021-10-07	적
33	강남빌딩	다단식	7	2009-12-04	2020-04-23	적
34	WJ빌딩	다층순환식	10	2010-05-20	2016-12-14	미검사
35	메디포스	승강기식	70	2010-07-22	2021-08-24	적
36	천사의도시	다단식	12	2010-10-29	2018-08-11	부
37	에듀시티	2단식	5	2011-04-12	2018-12-26	미검사
38	스마트빌딩	다층순환식	10	2011-11-21	2020-11-30	적
39	삼영프라자 (1,2호기)	2단식	12/2	2012-05-14	2021-05-14	적
40	베아뜨리체 상가관리 단 (1,2호기)	다단식	8/ 8	2012-06-11	2020-02-01	적
41	용화빌딩	다층순환식	18	2012-12-06	2020-01-17	적
42	충헌빌라트	다단식	11	2015-04-30	2021-08-02	부
43	청솔프라자	2단식	5	2015-05-07	2020-05-06	적
44	충청남도 아산시 온 여고길 7-1	다층순환식	23	2019-12-26	2019-12-26	적
45	하늘사랑교회	다단식	4	2019-05-24	2019-05-24	적



－ 예산군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H빌딩	수직순환식	8	2013-09-26	2018-09-12	미검사
2	충청남도 예산군 삼 교읍 두리 803-209	다단식	8	2019-05-09	2019-05-09	적



- 천안시 동남구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문컴플렉스	다층순환식	38	2004-07-23	2021-08-04	적
2	KB손해보험천안빌딩	평면왕복식	33	-	2020-10-05	적
3	옥금빌딩	2단식	20	-	2016-08-27	미검사
4	(주)캐럿상가관리단	2단식	40	2005-08-26	2021-10-18	부
5	도솔빌딩	승강기식	50	1997-02-21	2020-03-12	적
6	신부광산빌딩	수직순환식	28	1998-02-04	2019-01-21	적
7	로얄빌딩(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다단식	21	-	2021-07-05	적
8	천안문프라자	다단식	21	2003-12-18	2021-05-14	부
9	천호빌딩	승강기식	38	2001-08-25	2021-04-29	적
10	C&A타워 (1,2호기)	평면왕복식	32/36	2003-08-13	2020-11-26	적
11	삼성생명보험(주)	승강기식	50	2016-08-17	2021-08-13	적
12	천안시재향군인회 (1,2,3호기)	2단식	16/4/2	-	2021-05-04	적
13	랜드마크타워 (1,2,3호 기)	승강기식	56/58/57	2005-11-10	2018-06-01	미검사
14	삼부르네상스 (1,2,3,4 호기)	승강기식/평 면왕복식/평 면왕복식/평 면왕복식	60/36/36/36	2004-11-25	2019-10-10	미검사
15	터미널프라자	평면왕복식	40	2011-03-29	2021-10-19	부
16	그랑데리움	승강기식	70	2015-12-30	2020-12-11	적
17	휴먼빌딩	다단식	12	-	2019-11-23	적
18	부흥빌딩	수직순환식	10	2004-03-25	2019-05-19	적
19	금홍빌딩	수직순환식	7	2004-05-20	2021-06-08	적
20	건양빌딩	다단식	8	2004-11-17	2021-09-30	적
21	슈페리어	다단식	5	2004-12-20	2014-10-30	부
22	박삼웅빌딩	다단식	3	1997-06-04	2020-01-09	적
23	제일빌딩	다층순환식	14	-	020-12-07	적
24	드림타운	2단식	6	2001-03-09	2014-08-26	미검사
25	정현빌딩	2단식	6	-	2021-07-09	적
26	유범재빌딩	다단식	6	-	2020-06-08	적
27	신방빌딩	수직순환식	11	1997-12-15	2017-01-30	적
28	금파빌딩	다층순환식	11	1997-02-15	1997-02-15	미검사
29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신부2길 4-1	2단식	2	1998-12-23	2020-03-25	부
30	신방현대프라자	다단식	11	2004-09-20	2019-09-28	미검사
31	삼정빌딩 (1,2 호기)	다층순환식/2	15/2	1998-07-18/1999	2019-12-28/2021	적

		단식		-05-28	-09-27	
32	(주)명화	다층순환식	14	-	2020-07-20	적
33	란빌딩	다단식	3	1997-01-08	2020-07-06	적
34	웨스턴호텔	수직순환식	8	2004-07-23	2016-09-13	미검사
35	엘지유플러스	다층순환식	17	2001-06-14	2021-01-07	적
36	본우빌딩	다단식	6	2000-06-01	2020-12-24	적
37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터미널3길 10	다단식	3	1997-02-21	2015-04-24	미검사
38	세세빌딩	다층순환식	18	-	2021-01-22	적
39	ok빌딩	다단식	4	2003-01-21	2018-09-20	미검사
40	창녕빌딩	다층순환식	8	1997-01-17	2020-11-24	적
41	샷모델(1,2 호기)	2단식	4/12	2004-12-20	2015-06-11	미검사
42	우 리 은 행 천 안 지 점 (1,2 호기)	2단식	8/4	-	2021-06-14	부
43	시네마타워	다단식	29/5	1997-02-03	1997-02-03	미검사
44	제일프라자	2단식	8/12	-	1998-11-24	미검사
45	문화그린빌	다단식	4	2008-11-27	2020-04-23	부
46	대흥리치빌A동	다단식	4	2008-06-27	2013-12-20	미검사
47	대흥리치빌B동	다단식	4	2008-06-27	2013-12-20	미검사
48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큰재빠기길 7-1	2단식	2	2009-02-17	2014-05-20	미검사
49	중앙하이츠	다단식	5	2008-08-28	2013-12-20	미검사
50	대민빌	다단식	3	2010-08-31	2015-10-12	미검사
51	원성빌B동	다단식	3	2010-08-31	2020-01-16	적
52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중앙로 255-3	2단식	2	2015-12-09	2020-12-07	적
53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청수로 123-11	수직순환식	12	2017-03-28	2020-03-24	적
54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원성14길 24	다단식	3	2017-04-21	2021-03-25	적
55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수곡1길 9	다단식	3	2014-09-16	2014-09-16	미검사
56	신부풀하우스B	다단식	3	2014-10-07	2020-12-18	적
57	sm빌딩	2단식	3	2014-10-14	2019-10-08	적
58	대보빌딩	다단식	3	2014-11-05	2019-09-25	미검사
59	충청남도 천안시 동 남구 통정11로 46	다단식	3	2015-03-18	2021-04-19	적
60	시암빌딩	2단식	5	1998-06-02	2015-04-17	미검사
61	인심가빌	2단식	2	2015-06-01	2020-11-13	미검사



-천안시 서북구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동산타워	승강기식	40	2004-09-17	2021-10-15	부
2	태조프라자	승강기식	24	2004-08-25	2021-09-27	적
3	정안프라자	승강기식	32	2004-10-12	2021-09-14	적
4	명품플라스타	평면왕복식	40	2005-04-08	2020-09-22	적
5	리전프라자	다층순환식	30	2005-03-31	2018-07-23	미검사
6	C&J타워	평면왕복식	30	2005-06-08	2020-07-08	적
7	현대빌딩	승강기식	23	2004-04-01	2016-08-30	미검사
8	대우프라자	승강기식	38	2004-11-17	2020-02-06	적
9	반도메르디앙	다층순환식	38	2004-05-18	2019-07-12	미검사
10	세화프라자	다층순환식	42	2004-04-14	2021-08-10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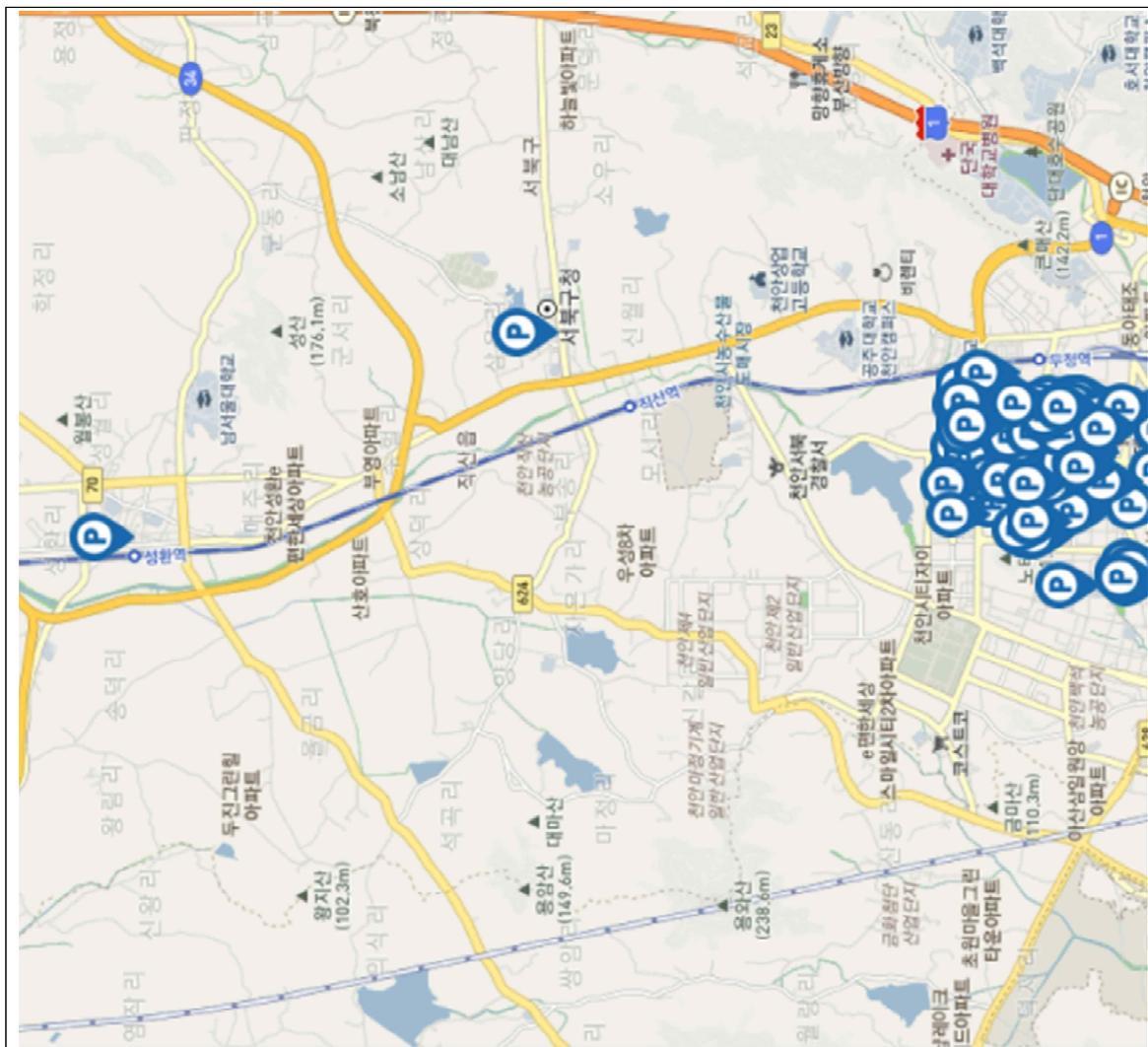
11	두성베르겐 (1, 2호기)	다단식/2단식	22/13	2005-06-16	2021-03-10 2018-08-29	적/미검사
12	일송빌딩	수직순환식	28	-	2020-10-05	적
13	일성이즈마트	다층순환식	30	1996-08-19	2020-09-01	적
14	삼성로하스오피스텔	평면왕복식	60	2007-01-12	2020-06-19	적
15	백석대학빌딩	평면왕복식	78	2004-07-02	2021-06-10	적
16	여우빌딩(부설주차장 인근설치) (1,2,3 호기)	승강기식	26/12/23	2006-08-10/2017 -05-01	2019-01-28/ 2020-05-05	부
17	다솜오피스텔	다층순환식	20	2006-11-28	2019-10-08	미검사
18	시떼베르	다층순환식	35	-	2019-12-20	적
19	MS빌딩	다층순환식	34	2007-08-24	2021-01-06	적
20	중앙프라자	다층순환식	38	-	2018-08-29	미검사
21	아선프라자 (1,2 호기)	다층순환식	20/18	2007-05-17	2021-08-23/2019 -11-18	적
22	유강복합빌딩	승강기식	52	2006-04-20	2020-04-11	적
23	명신빌딩	다층순환식	26	-	2019-11-05	미검사
24	천안포인트프라자	2단식	30	2006-07-26	2020-09-05	적
25	충남타워	2단식	40	2006-07-31	2021-04-29	미검사
26	호원빌딩 (1,2 호기)	승강기식/다 층순환식	40/32	2005-08-22/-	2020-10-30	적
27	명품암펠로스 (1,2 호 기)	다층순환식/2 단식	32/9	2005-10-25	2020-06-23/2020 -06-22	적
28	그랜드프라자	다층순환식	38	2005-09-12	2019-08-28	미검사
29	쌍용빌딩B (1,2 호기)	다단식	20/20	2005-04-21	2020-07-03	적
30	양지렉스빌 (1,2 호기)	평면왕복식	62/62	2004-01-06	2021-08-30	부
31	불당708타워	승강기식	46	2007-02-12	2019-01-28	미검사
32	탑필드프라자 (1,2,3,4 호기)	다단식	8/5/5/5	2006-08-17	2018-09-21	미검사
33	SKY빌딩	다단식	17/24	2008-08-01	2021-03-15	적
34	퍼스타오피스텔	다층순환식	26/26	2009-01-06	2020-04-24	적
35	프리미엄타워	다층순환식	30	2008-07-28	2019-11-08	적
36	청풍프라자	다층순환식	20	2007-11-12	2021-08-02	부
37	천안총무병원	승강기식	74	2010-12-21	2020-01-06	적
38	불당아름채오피스텔	다층순환식	23	2015-01-29	2020-01-17	적
39	천안아크로텔 (1,2,3,4 호기)	평면왕복식	50/50/63/42	2015-04-10	2020-05-06	적
40	천안베스트빌2차	승강기식	26	2016-07-26	2019-08-26	미검사
41	라마다앙코르호텔	평면왕복식	64	2017-05-18	2017-05-18	미검사
42	불당오딧세이	평면왕복식	39	2019-07-31	2019-07-31	적
43	필레오프라자II	다층순환식	18	2004-05-24	2019-09-25	미검사
44	프로섬빌	다단식	6	2005-07-11	2020-11-30	미검사
45	감산상가	다단식	8	2004-12-22	2020-08-25	적

46	원빌딩	수직순환식	9	2005-04-12	2020-04-27	적
47	백석메디칼	2단식	6	2003-10-14	2021-06-02	적
48	웰빙라이프빌딩	다층순환식	14	2004-12-01	2020-10-27	적
49	주연빌딩	다층순환식	8	2005-01-21	2021-05-13	미검사
50	글로리빌딩	다단식	8	2005-03-03	2020-02-28	적
51	태정프라자	2단식	12	2003-11-26	2016-09-06	미검사
52	동성빌딩	2단식	3	2005-07-05	2020-03-17	적
53	계룡타워	다단식	13	2004-01-06	2020-07-06	미검사
54	불당타운2	다층순환식	12	2004-10-08	2020-06-04	적
55	에이플러스빌딩	2단식	8	2004-04-14	2021-09-14	적
56	승진오피스텔	2단식	2	2005-03-03	2018-03-20	미검사
57	더블유호텔	다단식	6	2004-11-17	2018-03-22	미검사
58	리즈앤마리안산부인과	수직순환식	18	2004-07-14	2021-05-27	적
59	태산빌딩	다단식	9	2005-06-21	2014-09-17	미검사
60	불당타운1	다층순환식	14	2004-09-22	2019-11-11	적
61	STS반도체통신(주)	다단식	10	2005-07-28	2019-01-17	미검사
62	용호빌딩	다단식	12	1999-12-27	2021-06-22	부
63	용빈빌딩	다단식	8	2001-09-19	2021-06-23	적
64	태원빌딩	다단식	9	-	2020-04-20	부
65	티롤리아모텔	승강기식	16	2003-02-20	2020-07-10	적
66	쌍용프라자	2단식	12	1999-04-07	2020-02-06	적
67	정석빌딩	다단식	6	-	2020-05-19	적
68	타워프라자	2단식	10	2000-07-15	2019-11-12	적
69	본정형외과병원	2단식	6	-	2021-06-21	적
70	JS메디칼빌딩	다단식	8	2006-06-14	2021-04-30	적
71	영산프라자	다층순환식	19	2003-11-25	2020-07-01	적
72	아도라파크	다층순환식	11	1998-05-08	2014-09-11	적
73	미라클오피스텔	다층순환식	14	2007-05-31	2021-08-05	적
74	forever22 호텔	수직순환식	11	2003-06-25	2019-07-03	미검사
75	호정빌딩	수직순환식	11	2005-10-06	2021-05-14	부
76	팰리스호텔	다단식	11	2003-12-30	2019-01-10	미검사
77	유성빌딩	다층순환식	11	2006-01-20	2021-08-11	적
78	상준빌딩	2단식	7	2006-11-06	2020-05-22	적
79	제일빌딩	다단식	9	2003-07-11	2019-07-03	미검사
80	대림프라자 (1,2 호기)	다층순환식/2 단식	9/6	2004-06-15	2020-01-20	적
81	에스엠빌딩	다층순환식	14	2006-01-20	2021-09-16	적
82	백호빌딩	수직순환식	7	2004-07-23	2020-05-16	적
83	우영빌딩	다단식	8	2004-02-20	2019-08-21	미검사
84	아이파크	다단식	4	2007-04-30	2021-05-31	적
85	명서빌딩	다단식	9	2002-03-20	2019-04-12	미검사
86	불당동빌딩	수직순환식	8	2005-08-10	2020-03-17	적

87	엠엔에이빌딩	2단식	3	2005-11-30	2021-02-01	적
88	덕운빌딩	다단식	14	2006-06-29	2019-09-30	미검사
89	호진오피스텔	2단식	2	2005-08-29	2021-01-08	부
90	부국빌딩	승강기식	14	2007-06-28	2020-08-20	적
91	위너스2	다단식	4	2007-04-30	2017-12-29	부
92	무릉도원	다단식	4	2007-04-30	2021-02-22	부
93	빨간빌딩	다층순환식	17	2004-01-29	2021-03-19	적
94	레몬타워	2단식	6	2003-03-28	2020-09-25	적
95	백석현대프라자	다단식	14	2004-09-03	2021-06-02	적
96	유니온프라자	다단식	10	2004-08-29	2019-10-21	미검사
97	정이든빌	다단식	4	2007-04-30	2019-09-11	미검사
98	코리타운	다층순환식	14	2004-06-28	2021-08-26	부
99	세인트빌	다단식	6	2008-01-03	2021-06-01	부
100	천안21세기병원	다단식	8	2003-09-25	2019-10-29	미검사
101	훈빌딩	다단식	8	2006-11-23	2021-05-14	부
102	호텔소셜스미스	승강기식	19	2003-03-24	2020-03-18	적
103	주석프라자 (1,2 호기)	2단식	4/8	2004-09-10	2020-02-06	적
104	다존프라자 (1,2,3 호기)	2단식	10/3/5	2005-07-11	2021-07-23	부
105	센타프라자 (1,2 호기)	2단식	8/2	2004-10-27	2020-02-19	적
106	건지프라자 (1,2 호기)	다층순환식	6/12	2006-08-11	2018-12-19	부
107	대광빌딩	수직순환식	8	2008-05-02	2020-08-21	적
108	주원오피스텔	다단식	4	2008-12-26	2021-07-01	적
109	하나오피스텔	다단식	3	2009-02-13	2020-09-02	적
110	광성오피스텔	다단식	5	2009-02-13	2020-09-15	적
111	샘골동산	다단식	4	2009-03-20	2020-02-12	적
112	동양빌딩	다단식	6	2009-06-12	2021-04-20	적
113	다솔오피스텔	다단식	6	2008-07-14	2016-10-06	미검사
114	선영오피스텔	2단식	4	2008-10-10	2020-07-01	적
115	태훈오피스텔	2단식	5/3	2008-07-21	2020-04-03	적
116	시온빌	다단식	3	2008-07-21	2020-06-30	적
117	미래오피스텔	다단식	6	2008-05-15	2021-06-01	부
118	미래스위트홈	다단식	4	2008-08-13	2019-09-04	적
119	정다운오피스텔	다단식	3	2008-04-23	2019-07-24	적
120	휘슬러빌	다단식	3	2008-04-23	2019-07-19	적
121	대왕빌딩 (1,2 호기)	2단식	3/7	2008-09-09	2021-01-22	적
122	대흥타워빌2 (1,2 호기)	다단식	3/4	2008-09-01	2020-02-01	적
123	한솔가오피스텔7동	다단식	6	2008-02-20	2019-01-16	미검사
124	해피타운	다단식	3	2009-09-24	2020-10-16	적
125	삼성오피스텔	다단식	6	2009-07-24	2021-05-14	부
126	대흥타워	다단식	3/2	2010-03-12	2021-07-12	적

127	참조은병원	다단식	10	2010-05-20	2019-09-18	미검사
128	한비하우스	2단식	2	2010-05-31	2020-09-25	부
129	에코힐타운	다단식	3	2010-07-28	2020-10-06	적
130	재성빌딩	2단식	7	2010-07-30	2020-06-26	적
131	셀브르호텔	다단식	5	2010-09-06	2018-11-22	미검사
132	대흥캐슬	다단식	3	2010-10-20	2020-09-14	적
133	삼성플래티넘	다단식	3	2010-10-28	2021-02-02	적
134	대흥캐슬1	다단식	4	2010-11-08	2020-09-07	적
135	폴하우스오피스텔	다단식	4	2010-12-06	2020-09-07	적
136	몽	다단식	4	-	2017-04-07	미검사
137	경주빌	다단식	3	2011-03-16	2021-06-04	부
138	리한오피스텔	다단식	11	2011-02-28	2020-11-03	부
139	두정펠리체	다단식	3	2011-04-12	2020-09-25	부
140	동현빌딩	다단식	3	2011-03-17	2020-06-11	적
141	대영빌리지	2단식	4	2011-04-25	2020-06-11	적
142	삼성빌리지	2단식	4	2011-04-25	2020-06-11	적
143	그린빌 (1,2호기)	다단식	3/2	2011-05-25	2020-09-07	적
144	뉴웨르빌	다단식	3	2011-05-31	2020-06-11	적
145	아람빌	다단식	3	2011-06-14	2020-11-13	적
146	우진빌딩	다단식	3	2011-07-27	2020-07-28	적
147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성정중4길 39-15	2단식	2	2011-09-20	2020-10-05	적
148	지니하우스	다단식	3	2011-12-21	2019-07-04	부
149	씨니빌	다단식	3	2012-01-09	2019-08-16	미검사
150	라이브오피스텔	다단식	6	2009-04-09	2018-08-11	적
151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봉정로 229	2단식	2	2012-02-24	2015-02-25	미검사
152	여산빌딩	다단식	6	2012-03-12	2019-11-18	적
153	스타세움	다단식	3	2012-05-17	2019-08-21	미검사
154	리쓰리빌딩	수직순환식	6	2012-10-29	2019-12-20	적
155	백석빌딩	다단식	3	2013-04-17	2017-08-07	적
156	온누리	다단식	3	2013-10-07	2021-03-29	적
157	희망빌	다단식	3	2013-11-07	2021-04-05	적
158	엠에스프라자 (1,2,3,4 호기)	2단식	2/5/5/5	2006-07-12	2019-08-23	부
159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오성로 138	다단식	9	2015-11-27	2020-12-07	적
160	천안베스트빌3차	2단식	10	2016-06-03	2019-09-04	적
161	광성빌딩	수평순환식	19	-	2021-06-04	적
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225	승강기식	14	2018-04-25	2021-04-28	적

163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봉서8길 10	다단식	3	2014-05-29	2020-03-17	적
164	광산리오빌	승강기식	18	2014-08-19	2021-09-17	적
165	씨에스프라자호텔	승강기식	19	2002-09-13	2018-09-06	미검사
167	도쿄모텔	승강기식	19	2014-10-07	2021-09-13	적
168	메이플하우스	다단식	3	2014-10-17	2019-11-04	미검사
169	행복주택	다단식	3	2014-10-17	2020-04-06	적
170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백석4길 5	2단식	5	2015-07-16	2020-10-26	적



— 청양군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태민빌딩	다층순환식	29	1996-11-20	1996-11-20	미검사



— 홍성군

	기계식주차장 설치건물	종류	주차대수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1	충남빌딩	다층순환식	23	1998-12-08	2020-01-29	적
2	하나빌딩	승강기식	28	2006-08-17	2021-09-17	적
3	홍성병원	다층순환식	26	-	2010-09-15	미검사
4	삼일빌딩	승강기식	30	1997-06-09	2020-06-29	적
5	홍성온천파크	승강기식	44	-	2019-11-11	적
6	세아스프라자	다층순환식	10	2006-01-13	2021-03-02	적
7	롯데리아	2단식	4	1997-08-18	2019-11-12	적



-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 관련 사항은 「주차장법」 과 관련고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며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 가능

- 일반기준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수준에서 경감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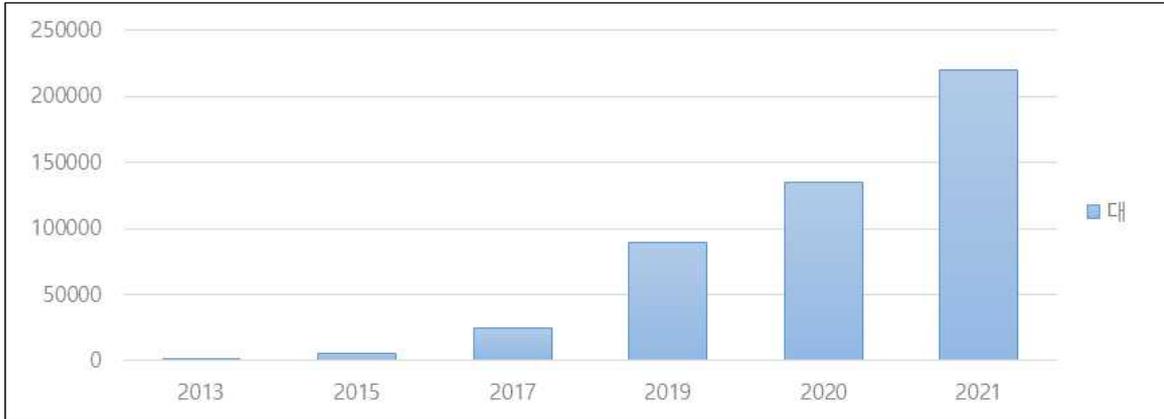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	과태료
가.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차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제30조제2항제1호	50만원
나.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20만원
다.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2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제2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제2항제4호	50만원
마.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제2항제5호	10만원
바.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차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차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제2항제6호	50만원
사. 법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2항제5호 의2	50만원
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제30조제2항제7호	50만원

과제 ②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감찰

- 2021년 8월 말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19만 1065대이며,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4만 7508대로 한달 평균 6,780대 꼴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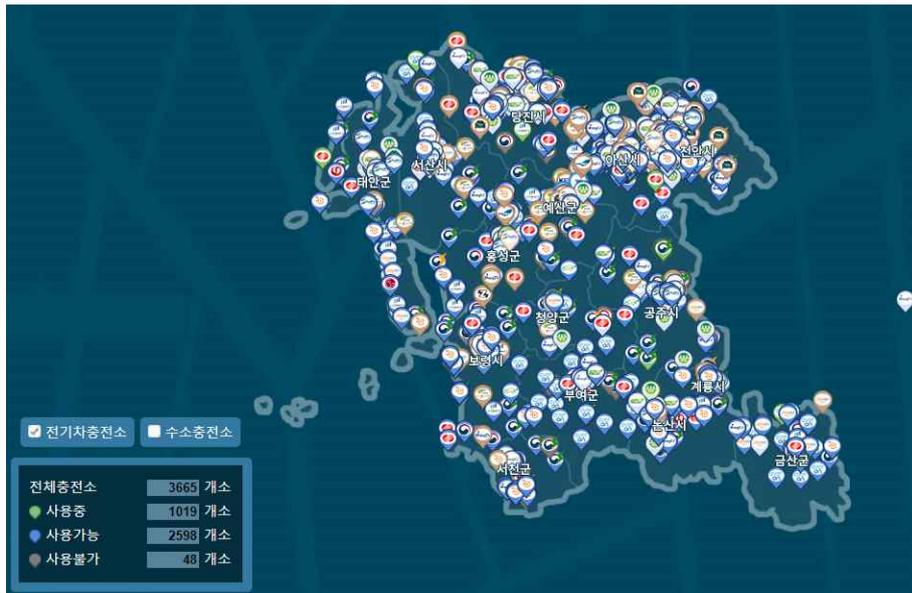
연말까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2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국토교통부 9월 23일 발표)



[그림 6] 연도별 전기자동차 등록대수

자료 : 국토교통부

- 전기차 공용충전소 설치는 2020년 말 기준 62,789기 로 완속충전기 구축사업은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7] 충청남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출처 : 환경부

-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 충전소 설치도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감독은

미흡하여 감전사고 등 발생 위험이 높음

- 특히 접지저항 성능의 안전기준 부합여부, 감전 위험에 따른 상시 잠금상태 유지를 위한 분전반 외함 개방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감전사고 발생 위험 고지를 위한 충전소 내 감전 위험 관련 안전 및 주의 표시 부착
 - 고장 및 불편 신고를 위한 비상 연락처 및 전용주차구역 표시 등 충전소 관련 규정 위반¹³⁾에 대한 단속 필요
- 전기 충전소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 파손 및 검사확인증 부착에 대한 점검·단속 필요
 - 충전소 운영이 정지되거나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고, 충전화면이 보이지 않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충전중 차량 이동을 방지하는 블라드, 스톱퍼 훼손 방지
 - 충전기, 분전함, 캐노피 등에 녹이 발생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경우
 - 안전검사 확인증 미부착

과제 ③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감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2019. 3. 시행)에 따라 승강기 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권한이 시·도 지사에게 부여되었으며, 설치 공사 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때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승강기 설치와 안전관리에 대한 시·도 지사의 책임 범위가 확장되었음
- 전국적으로 승강기 설치 대수는 2019년 70만대를 돌파한 이후, 2020년 9월 30일 현재 742,090대로 충남지역의 승강기는 전국 4.4% 수준인 총 32,294대가 설치 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220건의 승강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15명이 사망하였음
 - 도내에서는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등 증가추세에 있음
 - 고층건물이 급증하고있는 국내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

13) 관련규정 : 「전기설비기술기준」제14조, 제53조의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8장 제2절 제286조, 「2018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전기안전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점검 지침」, KC61851

- 승강기 증대고장 원인은 부품이상으로 전체의 42%에 달함
 - 그 외, 건축물전원차단, 누수, 침수 등 기타원인이 27%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정불량이 세 번째 원인(21.5%임)
- 승강기 관리업체에서는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점검만으로도 모든 항목에 대한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허위기재하는 사례 등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허위 자체점검 실시 및 입력사례
 - 승강기 기계실 내 권상기 오일 누유방지 등 유지관리 부실사례
 -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사례
 -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작성 사례
 -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
 - 비상통화장치 불량 사례
 -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의 미입회 사례
- 승강기 사고는 이용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함
- 2015년 이후 엘리베이터 설치, 교체, 유지관리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가 35명에 달하는 등 1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승강기 점검 중 안전수칙 미준수 및 이용자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

과제 ④ 상수도 안전관리 실태 감찰

- 최근 5년간 유류, 화학물질 유출 및 수환경 변화를 포함하는 수질오염 사고는 2014년 이후 감소 하고는 있으나 연평균 139건으로 적지 않음
- 공기업평가기준에 의해 상수도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평가¹⁴⁾하고 있으나, 실제 보고서 작성 내용과 현장 안전관리가 불일치 하거나 안전교육 이수여부 등이 허위 기재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감찰 필요함

14) 하수도 시설물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사고발생시를 가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 및 그 실적을 평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편람)

①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

- 총괄책임관 지정 및 운영(실제 훈련참여, 교육, 매뉴얼 관리 등 총괄 관리·운영)
- 총괄책임관 외의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 수준
- 총괄책임관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수준 및 체고노력
- 관련 예산(안전사고 예방·대응, 시설 개·보수, 교육훈련비 등) 확보 수준

② 재해·재난 및 외부견학시 안전관리매뉴얼 작성

- 하수처리시설 매뉴얼작성 대상지

- 밀폐공간 등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
-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 우려장소 등

예시) 침전지, 소화조, 농축조, 차집관로, 맨홀 및 기타관거 등

-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험 대상지에서 고장수리, 점검, 청소시 사고대비 준수할 사항
- 안전담당자 선임 및 임무 부여
- 위험장소 출입통제 표시
- 전기안전사고 대책
- 외부인 견학시 준수사항 등

③ 재해·재난 대비 교육 및 모의훈련

- 하수처리장 및 관로시설운영 담당부서의 안전관리 교육 및 참여정도
-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적 및 충실성(특히 간부급 참여정도 고려)

④ 재난·위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 유관기관, 협력업체, 내부조직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 응급복구인력 및 장비 구비정도

- 응급복구인력 및 복구장비 확보 정도(협력업체 보유장비 포함)

- 복구인력 : 자체인력 + 협력업체

- 복구장비 : 기중기, 준설차, 굴삭기, 양수기, 비상발전기 등
- 현장위험요소 측정기기 : 유화수소, 메탄, 암모니아, 산소농도포화도 측정 등
 - 상수도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안전성 고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시설 노후화에 의한 녹수 문제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상수도 관련 시설물 자체가 자지는 위험성과 수질 관련 사고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상수도 관련 시설물로는 취수시설과 파이프로 연결된 도수, 배수 및 급수 시설이 있음
 - 취수 및 전기 시설 등 건축물은 지진 등 재해에 취약하며, 정수시설 내 전기기기의 경우 누수로 인한 오작동 우려가 있음
 - 급수시설은 파손 확인이나 보수작업이 어려우며, 사실상 홍수 등 재해 발생시 피해규모가 큼
 - 수질 오염사고는 질병과 사망을 유발하고 공공보건이 상실되는 등의 우려가 있으며, 가뭄시 단수와 수질의 문제, 재정적 문제와 사회갈등을 야기함
 - 폭설, 폭염, 한파 등 극대화되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관 동파, 단수와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관리·운영 인력의 근무 여부를 매년 조사 후 미이행 시 처분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수형 등급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바 이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법적 요건	점검 사항	처분(과태료)
관리자	전문성(전공) + 경험(실무)	배치여부 조사 (‘19.12 일제조사, 매년 실시)	300만원 부과
운영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현장) "시험난이도가 운영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아서 응시하지 않아요."	교육이수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급 신설 및 별도 교육과정 개설(‘20)	과태료 신설(‘21)

- 산하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에서 안전관리자와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전반적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능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일부 현장에서 시공관리 및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적발됨
 - 상수도 사업본부가 배수지 및 정수장 안전관리를 위해 정한 청소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갖추

고 있는지 여부와 배수지, 가압장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이수한자가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한 시설물안전법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안전점검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 필요

- 특정고압가스 저장소 누출 검지기 관리 미흡 및 고압가스관리법 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 취급시설에 대해선 안전관리자 선임 미흡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과제 ⑤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불법이용 실태 감찰

-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¹⁵⁾ 관련 법제도 정비는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어 왔으며,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안 또는 추진 되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및 안전에 관한 가장 큰 이슈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
 -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차도 보다는 자전거 도로나 보도를 더 많이 이용하는 현실과 차도를 이용하도록 한 기존 도로교통법 규정의 괴리에 기인
- 개인형이동장치의 종류는 전동킥보드, 전통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포함

		
전동킥보드	전통 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그림 7]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 전동보드의 보유 대수는 가구당 0.2대 미만으로 자전거(가구당 0.9대)에 비해서는 보급 수준이 크게 낮으며, 전동 보드를 한번도 타본 적 없는 경우가 60%를 넘는 것으로

15)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의미함

조사됨(국토교통부, 2019)

-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 19 등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 공유 킥보드 업체를 통해 택시보다 빠르고 저렴한 이동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공유PM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며, 대다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대여와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운영 중임에 따라 대로변 인도 및 주택가 도로 등 길거리 무단방치로 인해 보행환경 불편이 야기

-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이동중 부딪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음주운전 적발 등 위법사례도 다수 발견됨

-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안전 제한 속도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탑승 인원 초과 등 안전 의식은 부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최대 시속 25km로 주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인도나 도로를 빠르게 달리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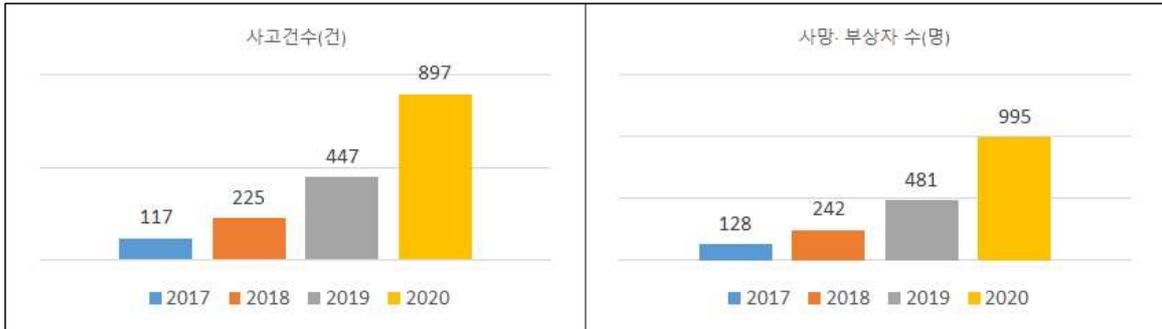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로 인하여 접촉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움

두명 이상이 함께 타는 위험한 질주 장면도 자주 목격됨

-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도 늘어나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PM 사고는 2018년 225건→2019년 447건→2020년 897건으로 매년 배가량 급증하는 추세

-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민원 건수도 지난해 4761건으로 2018년(511건) 보다 9.3배 증가를 보이고 있어 안전관리 시급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 2018년 225건으로 보고되고 있어 자전거 사고 (2018년 약 12,000건)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상황이나, 2017년 117건에 비해서는 2배 수준, 2020년에는 897건 으로 급증하는 양상



[그림 8]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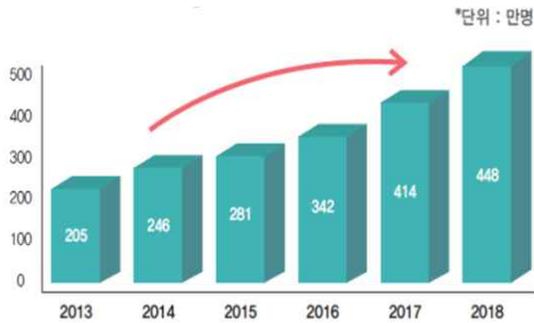
● 개인형이동장치 이용관련 감찰사례

- 길거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후 전동킥보드를 권장 주차구역으로 이동
-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어린이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PM을 운전하게 한 경우
- 공유PM 사업자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5월 전까지만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PM을 대여할 수 있으나 초중생 및 원동기이상 면허 없으나 타인 명의의 ID 로 공유 PM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감찰 필요
- 차도·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등 길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주차 제한구역 내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단속업무
-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개인형 이동수단 불법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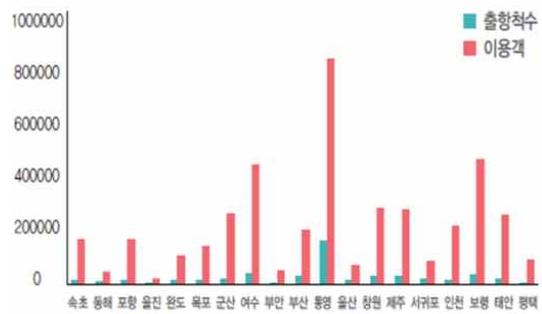
2.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

과제 ① 낚시어선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감찰

- 2018년 낚시어선 이용객은 448만 명으로, 2013년 205만 명 대비 2.2배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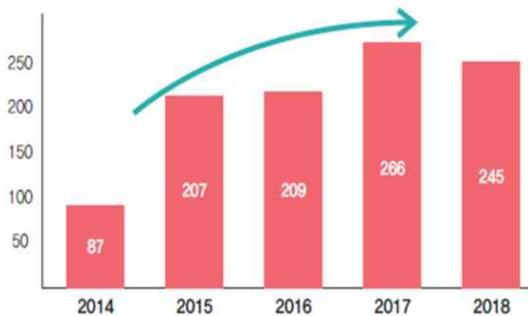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낚시 이용객 현황



[그림 10] 2017년 낚시어선 출항 수 및 이용객 현황

- 최근 낚시 인구 증가로 낚시 어선의 출항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고도 증가추세를 보임

- 낚시어선 사고는 2018년 기준 전체 선박 사고 3,434건의 7.1%, 전체 어선 사고 1,982건 중 12.7%를 차지



[그림 11] 연도별 낚시 이용객 현황



[그림 12] 2017년 낚시어선 출항 수 및 이용객 현황

- 2020년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에 따라 낚시어선 선장은 일정 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감찰을 통해 안전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 낚시어선 선장이 되려면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야함

-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

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도과

- 이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 필요

- 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
-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이에 따라 검사의 시기·기준·검사증서의 발급·유효기간 등을 정함
-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을 비치해야 하며, 낚시 중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있음

과제 ②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 실태 감찰

- 겨울철은 화재, 폭설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계절로, 제설 종합대책 등 분야별 생활안전 대책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31개 기관 표본감찰과 기초 지자체에 대한 263건의 감찰에서 예방, 대비, 대응의 전 단계에서 부실사례가 적발됨

<표 10> 겨울철 재난대비 대세 안전감찰 지적 사항

구분	대상	계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및 유지관리		비상대비 실태		지역축제		기타 ⁶⁾
			사전 조사 부적정	총괄 계획 미수립	안전 점검 부적정	시설유 지관리 부적정	계획 수립 미흡	비상 근무 부적정	안전 계획 미수립	안전 관리 미흡	
행안부	소계	88	12	22	22	8	3	12	5	2	2
	지자체	42	4	14	11	3	-	1	5	2	2
	도로 관리청	32	8	5	-	5	3	11	-	-	-
	공사 공단	14	-	3	11	-	-	-	-	-	-
시도	시군구	263	51	37	14	51	16	28	15	6	45
총계		351	63	59	36	59	19	40	20	8	47

자료 : 행정안전부(2019)

- 제설, 한파, 안전, 보건·환경, 민생 부분으로 구분하여 사전대비 준비, 위험시설 안전점검, 비상 장비 확보실태 점검 및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대규모 피해 우려 대응에 대한 업무소홀과 형식적 안전관리 감찰
 - 제설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적정 여부 및 이행실태
 - 제설장비·자재 의 정비 및 관리 실태
 - 염수 살포장치 등 제설장비 가동상태, 적정 보관량 및 보관상태
 - 취약지역 제설함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 비상연락체계 수립여부 및 현행화,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여부
 - 비상근무조 편성 및 취약지역 직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대형 공사장,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 기상특보시 비상근무 운영관리 실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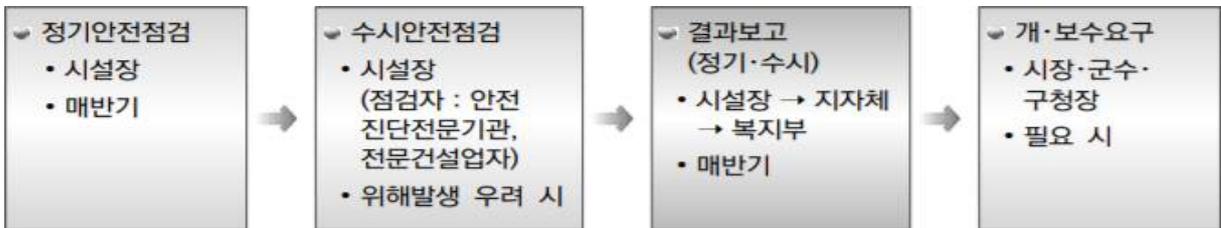
3. 안전약자를 보호하는 감찰

과제 ① 소규모 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찰

- '14.6.5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화재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 외에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바,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안내와 그 지도감독 등에 힘쓸 것(법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통합상품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보험이 2건 이상일 필요는 없음)
 - 화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통칭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이 화재사고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공제)에 해당함)
 -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시 관련 규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

16)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 조례 미개정,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위반, 화재 안전관리 위반 등

-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반사항을 감찰
-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 의무화 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에서 법령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하·동절기(4월 및 11월경)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 지자체 주관 집합교육(권장), 시설 자체교육, 모의훈련 등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안전 취약시기(하·동절기, 태풍발생 시 등)에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매뉴얼 준수여부, 안전의식, 교육·훈련 등 종합점검 실시시설 설치 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찰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개정('15.6.26)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는지 감찰

과제 ②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관리 감찰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중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설치되거나 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카드 기재가 불일치하는 등의 관리 소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장 등은 대상시설물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 2011년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등 보호구역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감찰 대상이 됨
 - 다만, 보호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하여 운전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거나 보호구역을 인접 보호구역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통합관리토록 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간 간 통합,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과의 통합을 통해 보호구역간 거리가 20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 개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중복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나머지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그 구간이 100미터 이하일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하며, 통합 구역의 범위가 최대 500미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함
 - 지자체 대부분 인접한 보호구역의 통합관리 미이행으로 개별 시·중점부에 산재한 표지판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시각적 피로감은 물론 표지판설치 예산낭비 초래

06 결론

1. 요약

- 이상에서는 안전 환경 진단과 대형사고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충남도가 2022년 안전감찰활동을 위하여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함
- 사회시스템의 변화와 기술수준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신종재난의 증가와 대형재난 확대로 이어졌으며,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비율이 확대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시함

● 급증하고 있는 대형사고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첫째,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 둘째,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 셋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화
 - 넷째,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 대처
 - 다섯째, 비리와 부실이 정상이 사회 풍조
-
-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적되는 안전부패유형과 위험목록 분석, 언론보도와 기존의 사례를 종합하여 만연한 생활 불법 요소를 찾아 처벌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함
 - 특히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사례를 돌아보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위험관리 부담과 책임에 대한 전가문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안전을 담보로 한 사익 추구 행태를 지적함

2. 안전감찰 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

- 안전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안전을 해치는 불법관행을 근절한다는 방향 하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패유발 구조를 추적하여 도민의 안전감수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추진전략

첫째, 일상의 안전을 위한 감찰

둘째,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

셋째, 안전약자를 보호하는 감찰

● 실행과제

(1) 일상의 안전을 위한 감찰

- 공영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감찰
-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감찰
- 상수도 안전관리 실태 감찰
-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불법이용 실태 감찰

(2)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감찰

- 낚시어선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 감찰
-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 실태 감찰

(3) 안전약자를 보호하는 감찰

- 소규모 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찰
-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관리 감찰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 안전 부패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일종의 생활 적폐라 할 수 있으며, 관행으로 이어진 습관은 단시간 내 해소하기 어려움

- 안전관련 규제와 점검 및 감독 부실, 안전관련 시설·장비 투자 및 안전의식 부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의 관행, 재난관리에 임하는 정부기관의 소극적 태도, 비리와 부실이 정상으로 치부되는 사회풍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대형사고 예방은 요원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부패를 뿌리 뽑고, 만연한 불법 요소를 근절하려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감사원. 감사총괄 및 안전분야 감사사례(총괄). 20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주요 해외사례. 2014.
- 고민서. 재난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 연계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17.
- 국토교통부. 20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2019 위험목록 보고서.
- 김기욱·이정석.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감찰 방안 연구. 2019. 부산연구원.
- 정경옥. 2020.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문제와 개선 방안. 월간교통(268: 11-17).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안전부패 사례를 통한 안전감찰업무의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 안전부패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2018.
- 행정안전부. 범정부 안전부패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8.
- 행정안전부. 2018. 안전부패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2018. 범정부 안전부패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행정안전부. 2019. 안전감찰 사례집(Ⅲ).